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Myoung-Hee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9. 5. 22, 심사(수정)일: 2009. 8. 21, 게재확정일: 2009. 9. 10)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ppearance interest, appearanc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to disclose the differences of these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322 teenaged girls (167 middle school students and 155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The variables of appearance interest were plastic surgery, weight control, clothing interest, and hairstyle interest. Life satisfaction include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lastic surgery interest and weight control interest, while appearance satisfaction had no relationships with clothing interest and hairstyle interest.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lastic surgery interest. The upper class adolescents had high level of clothing interest and life satisfaction, and lower class adolescents had high level of plastic surgery interest and had low appearance satisfaction as compared to other classes. The adolescent group with high school grade had high level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the group with low school grade had high level of weight control interest. The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appearance satisfaction the most, and the next in the order by school grade, residence area, and weight control interes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our variables was 30.8%. Social stratification and whether mothers had an occupation or not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adolescent(청소년), appearance interest(외모관심), appearance satisfaction(외모만족도), life satisfaction(생활만족도)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과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느끼게 되며 학업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생활만족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그 생활 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으로서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며, 태도를 의미한다.¹⁾ 생활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 가치, 경제수준, 학업성적 등이 관련되며,²⁾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최종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³⁾

한편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며, 또래집단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옷차림과 머리모양 등 외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⁴⁾ 더욱이 현재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확대되면서 좋은 신체적 외모가 행복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성형, 체중, 의복 등에 관심을 지니면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외모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 시기의 의복,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자아존중감,⁵⁾ 사회성이나⁶⁾ 사회참여도와 관련이 되며,⁷⁾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 연구는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외모관심도와 외모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며, 이들 변인이 학교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오늘날 청소년들의 외모관심과 생활만족도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며,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체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이나 행복한 느낌이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⁹⁾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김의철 외¹⁰⁾는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생활만족도에는 본인의 관계효능감, 부모 및 교사의 지원,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관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고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박강수¹¹⁾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약하게 영향을 주었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문정¹²⁾의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및 경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다.

이순형, 이영미¹³⁾는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청소년은 집합주의 가치와 가족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총체적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는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전효정¹⁴⁾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이 다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계선자 외¹⁵⁾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거주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군·읍·면 지역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고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학교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정우, 김경아¹⁶⁾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소득, 취업여부, 자아존중감, 인본주의 가치성향, 가정생활예절 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며,

박경숙¹⁷⁾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이 클수록, 여가활동 빈도 및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감소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2.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은 신체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 성형수술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간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은 외모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는 의복을 통하여 신체를 보완하거나 자기를 표현하게 된다.¹⁸⁾ 청소년기 여고생은 대인관계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며 대인관계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모양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¹⁹⁾ 이은희²⁰⁾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이기 보다 감각지향적이므로 외모의 멋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의복과 패션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고애란, 김양진²¹⁾의 연구에서 의복관심이 높은 여학생들은 공격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이 높았으며, MacGillivray와 Wilson²²⁾은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보다 외모관심에 대한 사회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 다양한 측면에서 의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 및 신체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문정미 외²³⁾의 연구에서는 의복관심이 높은 여학생들은 의복지출비가 많았고, 스스로 의복을 구매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의복관심은 사회계층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한편 의복 이외에 현대 사회에서 헤어스타일은 이미지 변신과 새로움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들은 유행추구 및 TV 시청량이 많을수록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높았다.²⁴⁾ 허정아²⁵⁾는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은 의복에서 그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복 착용의 학생들보다 헤어스타일에서 더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하주연 외²⁶⁾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외모관심과 감각추구성향, 제중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헤어스타일 흥미도가 높았다. 또한 신체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헤어스타일 흥미가 더 높았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이 없는 학생은 헤어스타일로 외모를 보완하려는 태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정애, 김용숙²⁷⁾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은 용돈이 많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외향성이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TV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어²⁸⁾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²⁹⁾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며,³⁰⁾ 유행·의복관심이 높았으며,³¹⁾ 자신을 뚱뚱하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위주의 의복작용은 덜 하는 편이었다.³²⁾ 또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남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의복만족도가 높았다.³³⁾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 행동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유창조, 정혜은³⁴⁾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성형수술 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당당한 느낌, 지위상승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며 심리적으로는 자기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적이므로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성형하기 바라는 경향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³⁵⁾ 김은주³⁶⁾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가장 성형 받고 싶어 하는 부위는 쌍꺼풀 수술이었고, 실제로 성형수술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 12-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경란, 이은희³⁷⁾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볼 때 16세의 청소년들이 성형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 등을 사용한다.³⁸⁾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기본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

결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나, 적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³⁹⁾ 장선철, 송미현⁴⁰⁾의 연구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타인과의 관계도 좋으며, 자신이 지도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느끼고,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윤경⁴¹⁾의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는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없었다. 김양진, 강혜원⁴²⁾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여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⁴³⁾의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가정의 소득에 의해 영향 받았으나, 부모의 학력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명⁴⁴⁾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는 남녀 모두 사회성 및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1학년들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아졌다.

4. 생활만족도와 외모

생활만족도를 외모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연구한 내용으로서 유경숙⁴⁵⁾의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경제수준, 사회활동, 건강상태, 가족 내의 관계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의복만족도 및 의복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김영애⁴⁶⁾는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 여성들이 기성복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하였다. 김계숙, 이혜숙⁴⁷⁾의 연구에서 노년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사회활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진구 외⁴⁸⁾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년 여성은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외모적합성, 디자인 다양성,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정장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김순구⁴⁹⁾는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의복지출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고, 생활만족도가 클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으면서 의복의 유행 및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 연구는 대부분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서 생활만족도가 의복관심이나 심미성, 의복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학년, 거주지, 어머니의 직업유무, 사회계층,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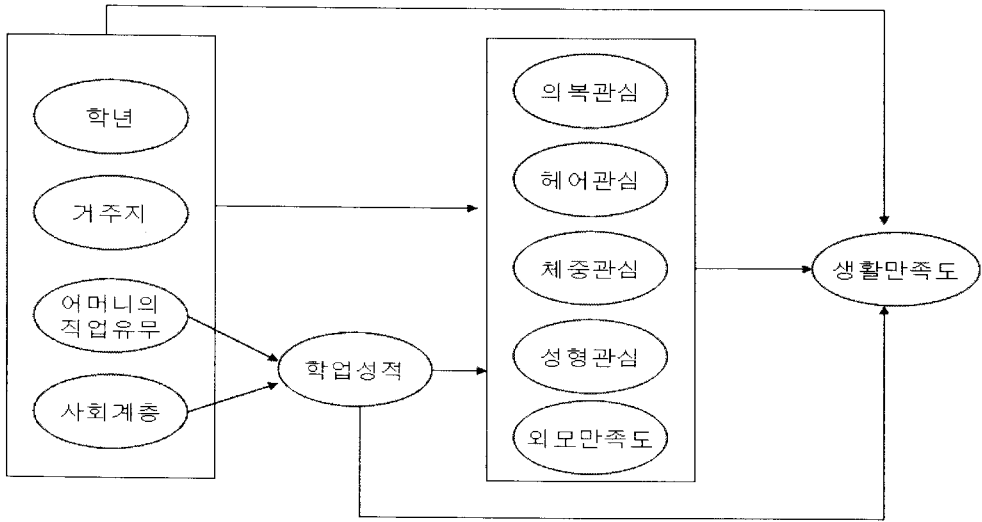
셋째,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는 5단계 Likert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외모관심은 체중관심, 헤어관심, 성형관심, 의복관심에 관한 내용을 선행연구⁵⁰⁾를 참고하여 택하였으며, 총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외모관심의 문항 분류를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모관심은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요인 1은 성형관심에 관한 4개 문항이 포함되어 성형관심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92였다. 요인 2는 체중관심에



〈그림 1〉 연구모형

관한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66이었다. 요인 3은 의복관심, 요인 4는 헤어관심에 관한 문항이 각각 4개씩 포함되어 의복관심과 헤어관심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29, 2.06이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9 이상이었으며, 누적변량은 58.55%였다. 각 요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86, .77, .73, .64였다.

외모만족도는 선행연구⁵¹⁾에서 택하여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며, 생활만족도를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으로 흡족한 정도로 보았다. 생활만족도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⁵²⁾에서 학교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각각 5개 문항씩 택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705, .620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속과 학년, 거주지, 어머니의 직업유무, 사회계층, 학급등수에 의한 학업성적을 포함하였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9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여자 청소년이었으며, 표집은 서울의 강북과 강남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1개씩 택하여 4개 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임의표집하였다. 피험자는 총 322명으로서 중학생이 167명(51.9%), 고등학생이 155명(48.1%)이었고, 거주지는 서울의 강북지역이 172명(53.4%), 강남지역이 150명(46.6%)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175명(54.3%), 직업이 없는 경우가 147명(45.7%)이었다. 사회계층은 대다수의 피험자가 중류층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중의 상층 이상은 상류층으로, 중의 하층 이하는 하류층으로 재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상, 중, 하류층이 각각 40.4%, 50.9%, 8.7%로 분포되었다. 학업성적은 1-10등이 33.2%, 11-25등이 44.7%, 26등 이상이 22.1%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상호상관관계

(N = 322)

외모, 생활만족도	성형관심	체중관심	의복관심	헤어관심	외모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총생활만족도
성형관심	1	-	-	-	-	-	-	-
체중관심	.20**	1	-	-	-	-	-	-
의복관심	.35**	.15**	1	-	-	-	-	-
헤어관심	.35**	.19**	-.47**	1	-	-	-	-
외모만족도	-.21**	-.24**	-.05	-.05	1	-	-	-
학교생활만족도	-.13*	.04	-.01	-.02	.24**	1	-	-
일상생활만족도	-.12*	-.09	-.08	-.05	.45**	.50**	1	-
총생활만족도	-.13*	-.03	-.05	-.02	.40**	.85**	.88**	1

* p<.05, ** p<.01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상호관련성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형관심, 체중관심, 의복관심, 헤어관심은 상호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의복관심은 헤어관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47$), 체중관심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r=.15$)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한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성형, 체중, 의복, 헤어 등 모든 외모관련 특성에 대하여 골고루 관심을 두고 있음을 뜻하며,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동질적인 행동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행연구⁵³⁾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의복의 개성추구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외모만족도는 의복관심 및 헤어관심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보편적인 행동으로서 자기 외모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지닌 것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만족도는 성형관심 및 체중관심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외모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성형이나 체중

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불만족하면서 자신의 체중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며, 외모에 불만을 지닌 청소년들이 성형을 통한 적극적인 외모향상 방법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는 성형관심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외모만족도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성형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서 외모만족도가 높았다. 총생활만족도도 성형관심과 부정적인 관계, 외모만족도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체중관심, 의복관심, 헤어관심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성형 및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거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성형관심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특성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의복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⁵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이 성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던 결과⁵⁵⁾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만족도의 차이

(N=322)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	성형관심	체중관심	의복관심	헤어관심	외모만족도
학년(중, 고)	중학생	2.68	2.69	3.31	2.59	2.80
	고등학생	2.62	2.82	3.36	2.49	2.90
	t	.50	-1.28	-.61	1.15	-1.30
거주지	강북지역	2.66	2.78	3.33	2.56	2.81
	강남지역	2.65	2.72	3.35	2.53	2.89
	t	.06	.63	-.30	.35	-1.04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2.71	2.79	3.43	2.57	2.80
	무	5.59	2.71	3.22	2.52	2.91
	t	1.03	.91	2.64**	.57	-1.57
사회계층	상	2.79ab	2.70	3.49a	2.67	3.01a
	중	2.51b	2.76	3.22b	2.47	2.78a
	하	2.90a	2.98	3.31ab	2.45	2.49b
	F	3.74*	1.28	5.17**	2.49	9.16**
학업성적	1-10등	2.60	2.60b	3.25	2.40	3.04a
	11-25등	2.66	2.73b	3.38	2.59	2.80b
	26등 이상	2.73	3.04a	3.39	2.67	2.66b
	F	.33	6.10**	1.28	2.85	7.68**

* p<.05, ** p<.01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외모관심 및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외모관심은 학교 및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의복관심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비교하면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의복관심이 더 높았다. 사회계층에 따라 성형관심, 의복관심, 외모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류층은 상류 및 중류층보다 성형관심이 높았고, 상류층은 중류 및 하류층보다 의복관심이 높았다. 중류층은 의복 및 성형관심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즉 상류층 청소년들은 의복을 통하여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하류층 청소년들은 성형을 통하여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의복관심이 사회계층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던 선행연구⁵⁶⁾와 차이가 있

었다.

외모만족도는 상류 및 중류층이 하류층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김미영⁵⁷⁾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라 체중관심과 외모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이 낮은 집단은 성적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에 비하여 체중관심이 높았고, 성적이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외모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 및 총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만족도가 높았다. 일상생활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에 따라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만족도와 총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강남지역 청소년들이 강북지역보다 더 만족도가 높았다. 계선자 외⁵⁸⁾의 연구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청소년의 거주지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N = 322)

인구통계적 변인	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총생활만족도
학년(중, 고)	중학생	2.99	2.82	2.91
	고등학생	3.16	2.94	3.05
	t	-2.26*	-1.34	-2.05*
거주지	강북지역	3.0	2.71	2.86
	강남지역	3.16	3.07	3.11
	t	-2.00*	-4.12**	-3.59**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3.01	2.75	2.88
	무	3.15	3.04	3.09
	t	-1.72	-3.38**	-2.99**
사회계층	상	3.07	3.00a	3.03a
	중	3.10	2.86a	2.98a
	하	2.91	2.43b	2.67b
	F	.89	6.50**	3.74*
학업성적	1-10등	3.28a	3.13a	3.21a
	11-25등	3.05b	2.88b	2.97b
	26등 이상	2.81c	2.50c	2.65c
	F	10.21**	15.38**	17.33**

* p<.05, ** p<.0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 총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이 더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사회계층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 및 총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하류층 청소년들은 상류 및 중류층보다 일상생활만족도와 총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것은 박경숙,⁵⁹⁾ 박강수⁶⁰⁾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만족도와 총생활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성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⁶¹⁾와 일치하였다.

3.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종속변인은 생활만족도이며, 독립변인은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5개의 인구통계적 변인이었다. 〈표 5〉는 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 중 체중관심, 외모만족도, 학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체중관심에는 외모만족도와 인구통계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고, 외모만족도에는 체중관심과 인구통계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학업성적에는 사회계층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거주지는 강북지역을 0점, 강남지역을 1점을 주었고,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경우를 0점, 직업이 있는 경우를 1점을 주어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322)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²	F
학교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	.219	3.98**	.122	11.00**
	학업성적	.217	4.00**		
	체중관심	.127	2.30*		
	학년	.107	2.01*		
일상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	.401	8.24**	.275	40.28**
	거주지	.187	3.91**		
	학업성적	.189	3.88**		
총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	.373	7.33**	.248	26.09**
	학업성적	.233	4.64**		
	거주지	.162	3.30**		
	체중관심	.106	2.09*		

* p<.05, ** p<.01 가변수: 거주지(강북=0, 강남=1)

〈표 5〉 청소년의 체중관심, 외모만족도, 학업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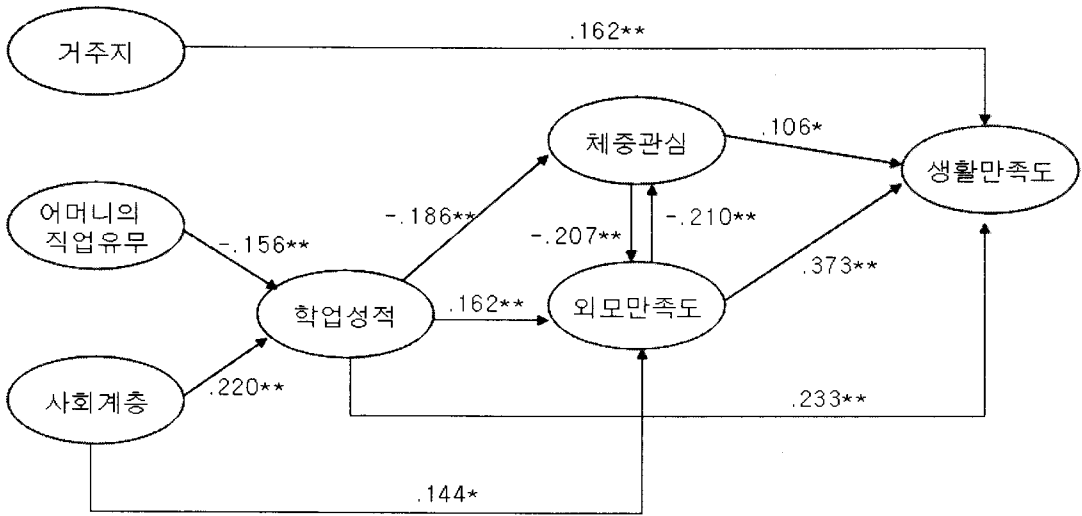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²	F
체중관심	외모만족도	-.210	-3.84**	.077	13.36**
	학업성적	-.145	-2.65**		
외모만족도	체중관심	-.207	-3.83**	.099	11.68**
	사회계층	.141	2.57*		
학업성적	학업성적	.124	2.23*	.078	13.50**
	사회계층	.220	4.09**		
	모의 직업유무	-.156	-2.90*		

* p<.05, ** p<.01 가변수: 모의 직업유무(무=0, 유=1)

〈표 4〉를 볼 때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학업성적, 체중관심, 학년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2.2%였다. 즉 외모만족도와 체중관심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 거주지,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27.5%였다. 즉 외모만족도가 높으며, 강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청소년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총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학업성적, 거주지, 체중관심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24.8%였다. 즉 외모만족도와 체중관심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우

수하고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청소년의 총체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한다고 한 장선철, 송미현⁶²⁾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표 5〉에서 볼 때 체중관심에는 외모만족도와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청소년들은 외모만족도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체중관심이 높았다. 외모만족도에는 체중관심, 사회계층과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체중관심이 낮고, 사회계층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높아졌다. 학업성적에는 사회계층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의 2개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계층이 높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p<.05, **p<.01

〈그림 2〉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모형

우수하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계층이 높은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업성적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그림 2〉에서 생활만족도는 총생활만족도를 의미한다.

〈그림 2〉를 볼 때 학업성적에는 사회계층(beta=.220)과 어머니의 직업유무(beta=-.156)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학업성적은 다시 체중관심(beta=-.186)과 외모만족도(beta=.162)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생활만족도에는 거주지(beta=.162), 학업성적(beta=.233), 체중관심(beta=.106), 외모만족도(beta=.373)가 직접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체중관심과 외모만족도는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체중관심은 외모만족도를 통하여, 외모만족도는 체중관심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관심이 높으며, 반대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학업성적을 통하

여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외모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beta=.144), 외모만족도를 통하여서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거주지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간접효과는 없었다. 학업성적은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체중관심 및 외모만족도를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었다. 이때 학업성적이 체중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수치를 나타내므로 체중관심이 학업성적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즉 체중관심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간접적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체중관심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 학업성적, 거주지, 체중관심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서 사회계층이 높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이들 변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자 청소년 322명으로서 중학생이 167명, 고등학생이 155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형관심, 체중관심, 의복관심, 헤어관심은 상호간에 모두 의미있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 외모의 한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모든 외모관련 특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다. 외모만족도는 성형관심 및 체중관심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외모에 불만을 지닌 청소년들은 체중 및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외모만족도는 의복관심 및 헤어관심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 및 일상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외모관심 중 성형관심은 학교생활만족도 및 일상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성형관심이 높을수록 총생활만족도는 낮았으나,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총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상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의복관심이 높았고, 하류층은 성형관심이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청소년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의복관심이 더 높았다. 또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외모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적이 낮은 집단은 체중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외모관심은 학년 및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만족도 및 일상생활만족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높았고, 하류층은 생활만족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낮았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일상생활만족도 및 총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넷째, 외모관심, 외모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

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학업성적, 체중관심, 학년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2.2%였다.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 거주지,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27.5%였다. 또한 총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학업성적, 거주지, 체중관심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24.8%였다. 체중관심에는 외모만족도와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외모만족도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체중관심이 높아졌다. 외모만족도에는 체중관심, 사회계층,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체중관심이 낮고 사회계층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높아졌다. 학업성적에는 사회계층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의 2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계층이 높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는 외모만족도, 학업성적, 거주지, 체중관심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학업성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서 사회계층이 높고,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류층은 생활만족도가 높으면서 의복관심이 높았고, 하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성형관심이 높으면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 변인들 중에서 체중관심이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여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모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청소년기에 적절한 외모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외모에 긍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령과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외모관련 변인을 폭넓게 포함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서 외모관심의 영향력이 낮았으므로 이들 변수 외에 상호관계가 있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모형적합도를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pp. 45-54.
- 2)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 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pp. 79-101.
- 3) 박경숙 (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pp. 121-135.
- 4) 이순형, 이영미 (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4(1), pp. 1-24.
- 5) 전효정 (2005).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 과정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9), pp. 85-96.
- 6) 전효정. *앞의 책*, pp. 85-96.
- 7)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 143.
- 8) 김순주 (1995). 자아존중도와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 및 성을 중심으로. *복식*, 26, pp. 49-67.
- 9) Mable, H. M., Blance, W. D. & Galgan, R. J. (1991).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pp. 907-911.
- 10) Richards, M. H., Boxer, A., Peter, A. C., & Albrecht, R.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313-321.
- 11) Francis, S. K. (1992). Effect of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2), pp. 29-33.
- 12) 김재숙, 이혜숙 (1989). 노인의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2(1), pp. 1-15.
- 13)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거주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1), pp. 57-74.
- 14) 유경숙 (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 광주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37.
- 15)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pp. 448-455.
- 16)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앞의 책*, pp. 79-101.
- 17) 박강수 (1999). 부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행동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6-38.
- 18) 고문정 (2003).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청소년의 내의 통제성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39.
- 19) 이순형, 이영미. *앞의 책*, pp. 1-24.
- 20) 전효정. *앞의 책*, pp. 85-96.
- 21)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2), pp. 57-72.
- 22) 이정우, 김경아 (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pp. 119-132.
- 23) 박경숙. *앞의 책*, pp. 121-135.
- 24) Rudd, N. A. & Lennon, S. 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pp. 152-162.
- 25) 김희창 (1999). 청소년기의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8.
- 26) 이은희 (2000). 청소년의 소비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월간 소비자*, no.218, pp. 24-28.
- 27)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pp. 667-681.
- 28)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pp. 43-49.
- 29) 문정미, 김수경, 임숙자 (2006). 가족의사소통과 의복관심이 청소년의 의복구매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2), pp. 93-103.
- 30) 김명희 (2001). 헤어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4-58.
- 31) 허정아 (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2-75.
- 32)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715-726.
- 33) 김정애, 김용숙 (2002).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교육학회지*, 14(1), pp. 55-73.

- 28) Thompson (1999) Thompson, K.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pp. 339-353.
- 29) 임경희 (2005). 신체이미지 수용과 여학생의 외모 가꾸기. *보건과 사회과학*, 17, pp. 107-132.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8.
- Higgins, E. T., Strauman, T., Vookles, J., Berenstein, V. & Chaken, S (1991). Self-discrepancies and vulnerability to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pp. 946-956.
- 30)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
- 31) 이미숙 (2000). *앞의 책*, p. 120.
- 32) 고애란, 심정은 (1998).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2, pp. 33-41.
- 33) 이미숙 (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pp. 433-443.
- 34) 유창조, 정혜은(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 (Beauty seeking behavior)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성 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1), pp. 211-232.
- 35)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pp. 95-113.
- 36)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3-54.
- 37) 전경란,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pp. 119-132.
- 38)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pp. 197-209.
- 39) 심정은, 고애란. *앞의 책*, pp. 1334-1345.
- 40)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pp. 115-133.
- 41)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0-51.
- 42) 김양진, 강혜원. *앞의 책*, pp. 197-209.
- 43) 김미영 (1984). *여자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8-47.
- 44) 구자명 (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8-42.
- 45) 유경숙. *앞의 책*, pp. 27-37.
- 46) 김영애 (1991).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 47) 김재숙, 이해숙. *앞의 책*, pp. 1-15.
- 48) 김진구, 서미아, 이우경, 이선희. *앞의 책*, pp. 57-74.
- 49) 김순구. *앞의 책*, pp. 49-67.
- 50) 김정애, 김용숙 (2002). *앞의 책*, pp. 55-73.
- 이미숙 (2000). *앞의 책*, pp. 138-140.
- 송경자, 김재숙 (1999). 신체이미지·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pp. 68-79.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3, 137.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Pergamon Press, pp. 125-129.
- 51) 구자명. *앞의 책*, pp. 55-56.
- 이미숙 (2000). *앞의 책*, pp. 138-140.
- 52) 고문정 (2003). *앞의 책*, pp. 73-74.
- 김동철 (1996).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호경향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6, 78-80.
- 김영훈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5, 137.
- 이종만 (2004).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생활만족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3.
- 53)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pp. 49-58.
- 54) 이명희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pp. 143-158.
- 55) 전경란. *앞의 책*, pp. 107-109.
- 56) 문정미, 김수경, 임숙자. *앞의 책*, pp. 93-103.
- 57) 김미영. *앞의 책*, pp. 38-47.
- 58)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유용. *앞의 책*, pp. 57-72.
- 59) 박경숙. *앞의 책*, pp. 121-135.
- 60) 박강수. *앞의 책*, pp. 36-38.
- 61)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앞의 책*, pp. 79-101.
- 62) 장선철, 송미현. *앞의 책*, pp. 115-133.